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18. 4. 12(목) 17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8. 4. 12(목)	담당부서	석유산업과
담당	과장 박재영 (044-203-5220)	담 당 자	사무관 조기훈(044-203-5221)

이인호 산업부 차관, 제16차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 참석

- 우리의 청정기술 혁신 사례 및 4차산업기술 활용 방안 소개
- 청정기술과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글로벌 협력 강화 방안 제안

* 제16차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 : 2018.4.10.~12, 인도 뉴델리

□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6차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4.10~4.12)에 참석했다.

□ 이번 장관회의에는 인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중국, 일본 등 51개 회원국 정부 대표, 석유수출국기구(OPEC)·국제에너지기구(IEA) 등 14개 국제기구, 엑슨모빌·세브론 등 30개 국제 에너지기업이 참석했다.

○ 참석자들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4개 세션에 참가하였으며,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통합, 에너지의 안정성·효율성·지속가능성 확보

< 제16차 국제에너지포럼 장관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4.10(화)~12(목), 인도 뉴델리
- **(주제)**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미래(The Future of Global Energy Security)
  - 주요세션 : ① (세션1) 글로벌 변화 : 에너지 안보의 미래, 새로운 균형 찾기
    ② (세션2) 지속적·포용적 성장 : 에너지 접근성과 경제성
    ③ (세션3) 석유·가스 시장 안정과 변화 : 새로운 시대의 투자
    ④ (세션4) 청정기술의 활용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존과 혁신

□ 이인호 차관은 「청정기술의 활용·보급」이란 주제의 발표에 참가해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의 기술 자립화 사례와 에너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기술개발 현황을 소개했다.

○ 특히, 에너지 공급시스템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향상시켜 경제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 개발에 힘써 왔음을 강조했다.

- 그 결과, 2009년에 5번째 원전 수출국, 2012년에는 설계부터 운영까지 완전한 기술자립에 성공했다.

- 아울러, 석탄발전에서도 국산기술로 지어진 초초임계압 발전소를 2017년부터 운영해 석탄발전의 효율향상도 이루어졌음을 말했다.

○ 앞으로는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최우선 국가 주요의제로 삼아 추진 중이며,

-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패는 경제성 있는 발전단가 확보 여부에 달려있는 바, 가스터빈 기술의 자립화, 재생에너지 기술의 혁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특히, 태양광 웨이퍼 대면적화 기술, 6MW 이상 초대형 해상풍력 시스템 등 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의 통합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석탄발전의 청정화를 위해 탈황·탈질·집진 설비 등 환경설비 기술을 개발 중이며,

-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대적인 성능개선을 통해 발전효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A ICBM’(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 빅데이터 , 모빌리티)으로 대표되는 디지털기술을 에너지 산업에 접목하기 위해 스마트 미터를 ‘20년까지 모든 가정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청정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캐나다 등 8개 국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추진한 필리핀 도서지역에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시스템 보급사업 사례도 설명했다.

□ 아울러, 이인호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 베트남 등 각국의 정부 대표를 만나 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특히,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을 만나 양국간 협력관계가 정상회담 이후 한 층 강화했음을 평가하고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조기훈 사무관(☎ 044-203-5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 주요일정

	시간	내용
4.10 (화)	19:30～21:00	▪ 환영만찬
4.11 (수)	09:30～10:30	▪ 개회식(개회사 : 인도 총리)
	10:45～12:15	▪ 세션1. 글로벌 변화 : 글로벌 에너지 안보의 미래, 새로운 균형 찾기 (Global Shifts: The Future of Global Energy Security - Finding New Balances)
	12:15～14:00	▪ 세션2. 지속가능 포용적 성장 : 에너지 접근성과 경제성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 Energy Access and Affordability)
	15:30～16:45	▪ 민관라운드테이블1. 정제 및 석유화학분야 (Refining, and Petrochemical Sector - New Growth Potentials and Rationalisation)
		▪ 민관라운드테이블2. 에너지부문 투자유치 (Fiscal Regimes and Legal Reforms to Attract Investment in the Energy Sector)
	17:00～18:15	▪ 민관라운드테이블3. 에너지부문 디지털화 (Energy Sector Digitalisation - Benefits and Challenges)
		▪ 민관라운드테이블4. 인적자원 (Human Resources: Attracting Talent to a Vibrant Industry - Integrating New Generations and Technologies)
4.12 (목)	09:00～10:30	▪ 세션3. 석유·가스 시장의 안정과 변화 : 새로운 시대의 투자 (Oil & Gas Market Stability and Change - Investment In a New Era)
	11:00～12:30	▪ 세션4. 청정기술의 활용 : 신기술과 기존기술의 공존과 혁신-앞으로의 길 (Uptake of Clean Technologies : Disruption and Coexistence of New and Existing Technologies - The Way Ahead)
	12:30～13:15	▪ 폐회식

참고2 국제에너지포럼(IEF) 장관회의 개요

□ 개요

○ **(목적)** 석유·가스 생산국과 소비국간 네트워크 구축, 중요한 에너지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의 촉진 등

○ **(회원국)** 72개 회원국, 5개 국제기구 (한국은 '05년 가입)

구분	회원국
아시아·태평양(13)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8)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카타르, UAE, 이라크, 바레인, 예멘
미주(6)	캐나다, 미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CIS(3)	러시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유럽(19)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벨기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키프로스
아프리카(23)	알제리, 나이지리아, 이집트, 남아공, 앙골라,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차드, 코모로, 주부티, 기니아, 모리타니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 연혁

○ '91년, 프랑스·베네주엘라 대통령 주창으로 장관급 회의 시작(1차 프랑스)
○ '00년, 사우디 제안으로 사무국 설립을 준비, '05년 리야드에 설립
○ '10년, 제12차 멕시코 칸쿤회의에서 국제기구화 논의가 제기
○ '11년, 사우디 특별장관회의에서 IEF헌장을 제정하면서 국제기구로 격상

□ 주요 기능

○ 소비국 모임인 IEA와 생산국 모임인 OPEC간 에너지시장에 관한 시각 공유 및 양자간 협력 증진·중재

○ IEF 회원국간 협력 증진 및 IEBF(국제에너지비즈니스포럼, '04년~)을 통한 민간-정부간 협력 증진

○ JODI(국제공동통계)를 통해 시장투명성 강화 및 에너지시장 안정화에 기여

□ 조직

○ 장관회의(Ministerial Meeting) : 2년마다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개최
○ 이사회(executive board) : 포럼의 운영주체로, 장관회의 개최국 선정, 회원국 자격승인, 사무총장 지명 등 주요사안을 검토·승인
○ 사무국/사무총장 : 사우디 리야드 소재 / Sun Xiansheng('16.8월~현재)